

메가톤급 악재 새누리당 패닉

야권선 “김효재 수석도 물러나야” 총공세

돈봉투 파문 박의장 사퇴·후임 홍사덕·이해봉 거론

새누리당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아온 박희태 의장이 9일 전격 사퇴하면서 총선을 앞둔 야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다”며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공세가 번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돈 봉투 사건이 총선기간 내내 이슈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2008년 7월 전당대회 직후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원까지 바뀌기면서 전방위적인 쇄신이 나섰지만, 박 의장이 사퇴하면서 자칫 그간의 쇄신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당에서 수차례,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자진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박 의장이 왜 이렇게까지 사태를 키웠던가”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민심이반으로 안 그래도 총선이 어렵게 생겼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와 단절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舊) 체제와 선을 긋지 않고 선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장 사퇴 직후 야권은 대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의장 사퇴는 너무 늦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을 매우 슬프게 한다”면서 “박 의장 말고도 더 물러나야 할 분이 또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부수석도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검찰이 아닌 성실한 검사들, 이제 일어나 우리 국민을 위해 제발 성실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며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는 박 의장의 모습에 국민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박희태씨는 이제라도 스스로 검찰에 나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박 의장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로는 6선인 정몽준·홍사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계 중진 중 처음으로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서 경쟁정치 살리겠다”

이정현 의원, 서구 을 출마 선언

새누리당 이정현(비례) 의원은 9일 “광주에서 23년 일당 독점·독식을 심관하겠다”며 4·11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서구의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서 정치경쟁이 사라진 지 27년이 됐다. 광주에서 사라진 정치경쟁을 살려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며 “23년 동안 일직의 당(민주당)에서 호남 예산 집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호남정치가 일당 독식·독점을 통해 27년을 온실에서 크다 보니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경쟁이 없어 이제 대선 주자 하나 못

내는 호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에서는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이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는 데, 호남 정치는 민주당 후보가 공천장을 자판기에 넣으면 당선 증이 나온다”며 “이젠 광주에서도 정치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남해안 관광산업, 광주문화산업, 첨단산업으로 호남 르네상스를 열겠다”며, “지역차별 없는 인사 탄생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뒤 부를을 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지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구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원 못한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4·11 총선을 앞두고 시·군·구의원 등 지방의원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무더기로 물러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면 해당 시·구의원들은 반드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가 ‘시·구의원의 선거운

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0조3의 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지방의원도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3의 2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등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

록하지 않은 지방의원들이 예비후보인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할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에 해당되는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지원’ 선거 운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원한 정치 맞수’ 동시 퇴장

박희태-박상천 13대 총선서 나란히 입성 같은 시기 여야 대변인·원내총무 맡기도



9일 국회에서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

영원한 라이벌로 한 시대를 풍미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민주통합당 박상천 상임고문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의도 정치 퇴장을 선언, 눈길을 끌었다. 1938년생 74세 동갑내기인 두 정치인은 함께 대한민국 정치사를 함께 걸어온 ‘50년 지기’다. 박 의장은 경남 남해, 박 고문은 고흥에서 각각 태어났으나 1957년 서울대 법대에 함께 입학했으며 1961년 나란히 고등고시 사법과

(13회)에 통과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부산고검장까지 오른 반면 박 고문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쳤다. 두 사람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장은 민주정의당, 박 고문은 평화민주당에 소속돼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 여야의 대변인을 맡아 초출신인의 논평으로 이름을 높였고, 1997년에는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원내총무를 동시에 맡는 등 정치권력의 대표적 맞수로 거론됐다. 박 의장은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법무부 장관에 올랐고, 박 고문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 또 박 의장은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다.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후 2010년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올랐다. 박 고문은 세 차례 원내총무를 지낸 뒤 2003년 새천년민주당 대표, 2008년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등 당의 수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에겐 시련도 있었다. 박 고문은 2003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해 나갈 때 민주당을 지키다가 이듬해 17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다시 합당해 치른 18대 총선에서 5선 배지를 달았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당내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박 의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는



같은 날 전격사퇴를 발표한 뒤 국회의장 공관을 나서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9년 10·28 재보선 때 양산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6선에 성공했고 국회의장에 올랐다. 이토록 동료이자 맞수로 50여년을 살았던 두 사람은 사실상 정계 은퇴하는 날까지 맞춘 듯한 독특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머나는 뒷모습은 달랐다. 박 의장은 ‘불명예’ 퇴진한 반면 박 의원은 동료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대선 광주연대 본격 활동

공천혁신·야권연대·아젠다 개발 제시

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체인지(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가 야권연대 촉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연대는 오는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연대와 연합 촉구 ▲정당 공천혁신 ▲4·11 총선과 연대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

혔다. 이들은 최근 삼일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광주연대는 이를 위해 ▲총선 공동 대응 대구 토론회 ▲총선에서의 야권의 연대와 연합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2012 시민소리를 위한 원탁 아젠다 개발 및 제시 ▲전국, 전남과 연대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

디도스 특검법 등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법(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을 처리했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확정됐다. 수사대상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인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 24주 (96시간)

과정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2월 28일(화) 09:30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1일(목) 09:30	각25명
2급반	수요일(오후) : 2012년 2월 29일(수) 14:0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2월 29일(수) 09:30	25명

▶수업시간 : 09:30 ~ 13:00 (오전반) / 14:00 ~ 17:30 (오후반)

수료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사사 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사
- 연수과정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준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문의상담 : ☎ 062)366-9666, 367-8666

• 지도교수 (문의상담)
010-9221-5225(1-특급), 016-9340-6991(2-3급)
011-9937-2729(2급), 011-614-2618(2-3급)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문화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광관리협회부근)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보청기 환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4기)	광주교육대학교 (제5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2. 3. 9(금) 09:10(교급반) · 오후반: 2012. 3. 9(금) 14:10(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1. 3. 10(토) 09:10(교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2. 3. 8(목) 09:10(초급반) · 오후반: 2012. 3. 8(목) 14:10(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2. 3. 9(토) 14:10(특급반)
모집기간	2012. 1. 30(월)~3. 10(토)	2012. 1. 30(월)~3. 10(토)
수업기간	2012. 3. 9(금)~2012.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3. 8(목)~2012.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EDUCATION UNIVERSITY http://www.gwue.ac.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2년 제8기)

- 개강일시 : 2012. 3. 5(월)
기초주간반 9:30, 기초야간반 19:00
심화주간반 9: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1. 6(월) ~ 2012. 3. 2(금)
- 수업기간 : 2012. 3. 5(월) ~ 2012. 6. 18(월) (총 105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주간반, 야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30~12:30
- 야간반 19:00~21:50
- 수료 후 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③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 530-3873-3876
담양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R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8.kr